

##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성경말씀: 삼하24:1-25, 1-4, 18-25

예배당을 옮기다보니 자꾸 사람의 수를 언급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양심을 누른다. 사2:22: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수, 헌금, 예배당 크기, 목사의 학위, 십일조, 내가 한 일 등 자랑, 합당치 않다.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혹시 이런 함정에 빠질까 염려가 된다. ★★★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행13:22), 참으로 귀한 사람

골리앗을 죽인 뒤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함. 왕의 기름부음을 받음. 쫓겨 다니기 시작함.

대상12장: 시글락에서 숨어 지낼 때에 여러 지파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함

대상12:22, 다양한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그를 돕기 시작함. 우리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고생이 끝나고 태평성대 시대가 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

밧세바 사건, 압살롬 사건, 인구 조사 사건, 대상21장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악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유익으로 바꾸시는가?

###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 교만(1-9절)

잘 되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도대체 내 힘이 얼마나 되는가?' 수를 세기 시작한다.

우리 교회, 내 성도, 헌금, 킹제임스 성경 사역 등,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생각

백성의 수를 세는 인구 조사(출30:11-16; 민3:40-51)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인구 조사를 할 때 반 세겔을 냄(출30). 이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유지 보수하는 데 쓰임(출38:25-28).

24장 2, 4, 9, 10절의 백성은 군사들을 가리킨다(9절).

다윗의 인구 조사는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것이었다(9절).

명령을 받은 요압의 말(3절)은 이 일이 교만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범법의 원인(대상21:3)

요압은 원래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그가 보기에 이 일은 좋지 않았다.

아마도 다윗은 자기가 죽은 뒤 자기 아들 솔로몬의 통치를 위해 이 일을 한다고 정당화했을 것이다.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 이 일을 한다고 했을 것이다. ★★★

대부분의 사람들의 정당화 이유: 주님을 기쁘게 한다고 한다.

교회가 이 죄악을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예배당 크기와 교인 수 No.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영과 진리로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요4:23-24). ★★★

대언자들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친히 보여 주셨다. 4복음서

대상21:7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나 요압과 그의 부대가 9달 20일 동안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다(20세 이상의 군사들).

요압은 예루살렘을 떠나 요르단을 건너 사해 근처의 아로엘에서부터 북쪽으로 가서 갓과 길르앗으로

갔다(단) 서쪽으로 두로와 시돈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브엘세바로 갔다가 다시 유다로 돌아왔다.

레위 사람들과 베냐민은 세지 않았다. 총 130만 명(9절)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 교만, 하나님 없이 해 보겠다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

사탄(사14), 아담과 이브(창3), 아브라함, 다윗,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목사(딤후3:6), 교회의 질서

###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복되다(10-14절)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

다윗은 곧바로 양심에 찔려 회개하였다(10절). 6차례, '내가 죄를 지었노라'(삼하12:13; 24:10, 17;

대상21:8; 시41:4; 51:4).

밧세바 사건: 죄를 지었다(삼하12:13), 여기서는 크게 죄를 지었다(대상21:8). ★★★

밧세바를 취한 죄와 인구 조사 죄 중 어느 것이 더 클까?

밧세바 사건으로 죽은 사람(4명, 아이,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플러스 우리야

인구 조사의 교만 죄: 70,000명(15절)

밧세바의 죄: 육신의 죄, 게으름,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함

인구 조사의 죄: 영의 죄, 교만의 죄(잠6:16-19), 교만은 모든 죄의 온상이다.

성경은 정욕의 죄 혹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와 의도적인 죄를 다르게 취급한다(도피 도서).

인구 조사 죄는 의도적인 반역이다. ★★★

9개월의 기간을 주었으나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우리는 어떤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가? 그 형벌이 크다. 부부 관계, 무모자식관계, 세상 일 ★★★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통해 죄인들이 회개하면 언제나 그들을 용서하신다(요일1:9).

그러나 그분의 공의 속에서 결과는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갈6:7). 심는 대로 거둔다. ★★★

하나님은 그에게 세 가지 재앙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신다(7년 기근, 3개월 패전, 사흘간의 역병)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자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도록 하신다.

이 세 가지 재앙은 원래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이 내리겠다고 한 것들이다.

#### 통회하는 왕과 지도자들(15-25절)

바로 그 날 아침부터 역병이 시작되어 70,000명이 죽고 파멸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함. 하나님의 명령, 천사가 여부스 족속 아라우나(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섰

이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간청을 함

자기의 죄로 인해 백성이 죽으므로 차라리 자기와 자기 집을 쳐 달라고 간구함.

이때에 장로들과 다윗이 땅에 엎드려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대상21:26).

다윗이 죄를 지었으나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있었음. 즉 온 백성이 죄를 지음.

지금의 천안함 사건,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통회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한다.

누가복음 13장, 실로암 땅대, 18명,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

천안함, 금양호 군인들과 선원들, 모두 회개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대언자 갓을 보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심(제단을 쌓음)

아라우나가 타작마당과 제물을 거저 주겠다고 함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죄가 큰 것을 알고 자기의 희생 없이 빌려서 제물을 드리지 않겠다고 함.

은 50세겔로 마당과 제물을 사고 금 600세겔로 타작마당이 있는 장소를 삼

우리 교회 예배당 이전, 풍성히 하나님께 바쳤다. 금목걸이를 낸 자매도 있다. 건물 찾기, 집사들의 결의, 매일 작업 감독, 음향 작업, 책 정리, 청소 등 희생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 ★★★

희생이 있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움, 하나님의 승인(대상21:26). ★★★

이 교회의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다윗이 산 땅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한 곳 즉 모리아 산이다(창22).

물론 솔로몬이 여기에 성전을 지었다.

역병이 그친 뒤에 다윗은 이곳을 경배의 제사와 장소로 삼았다.

그 당시에 제단과 성막은 기브온(예루살렘 북서쪽 12km)에 있었다(대상21:29).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경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곳을 주 하나님의 집이요, 번제 헌물 제단으로 삼았다(대상22:1).

바로 이때로부터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준비가 다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

다윗의 가장 큰 죄: 밋세바 사건, 인구조사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신다.

밋세바의 아들 솔로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사람은 죄를 짓고 타락하고 형벌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속에서 자신의 일을 이루신다.

롬8:28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롬5:20).

롬11:33-36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선하게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